

독서역할모델이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Impact of Reading Role Model Influencing Reading Effectiveness to High Students

정 대 근(Dae-Keun Jeong)*

박 성 우(Seong-Woo Park)**

〈목 차〉

I. 서론	III.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가설 설정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기초자료 분석
II. 이론적 고찰	3. 실증분석 및 연구가설 검증
1. 독서유효성	4. 분석결과
2. 독서유효성 구성요인	IV. 독서역할모델 활성화 방안
3. 독서역할모델	V.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독서역할모델인 부모, 교사, 친구가 고등학생의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인 성별, 고등학교 계열, 학년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독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역할모델은 친구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인문계열보다는 전문계열의 학생들이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부모요인은 남학생, 고등학교 3학년 및 인문계열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반면, 교사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보다 전문계열 학생들에게 영향을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요인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키워드: 독서역할모델,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고등학생 독서, 교사, 부모, 친구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s on the reading flow, reading satisfaction, and continuous willingness to read books for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s a reading role model to influenc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differences i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gender, disciplines, and grade. The result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 for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is friends and male students are more influenced by their friends than female students. In addition, stud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 are more influenced by their friends than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 Parents factor relatively affects the reading for male students, 3rd grade students in high school, and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 On the other hand, teachers barely affect the reading factors for students.

Keywords: Reading role mode, Reading effectiveness, Reading flow, Reading satisfaction, Reading continuous willingness, Teacher, Parents, Friend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basicwindy@naver.com) (제1저자)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ulturepark@gwangj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5년 8월 20일 •최초심사: 2015년 8월 25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1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201-224,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9.201]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인간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 방식이나 사회 환경 및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타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모델이 되는 대상을 닮으려고 시도하며 그 모델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특정 사회적 역할은 중요한 가치나 태도, 행동들을 하는데 기준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영복 2000, 267). Bandura는 발달의 주요한 기제는 학습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관찰학습은 중요한 발달 과정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은 타인을 관찰하면서 타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모방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모방할 가치가 있는 타인들은 개인의 인지적, 성격적, 행동적 발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Bandura는 ‘역할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Bandura 1977).

역할모델은 특히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에 인간은 생물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변화를 함께 겪으면서 추상적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가설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역할모델의 모습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관련시키며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반영하려고 한다. Piaget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 시절과 달리 이상적인 특성, 즉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적이었던 하는 특성들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상적인 부모상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과 자신의 부모를 비교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도 한다(정옥분, 2005, 재인용).

고등학생의 역할모델은 특히 독서에서도 실효적으로 작용하는데, 기존의 연구결과(김대회, 엄혜영 2012; 이순영 2006b; McGee and Richgels 1995; Gambrell 1996; Newman 1982; Downing, Ollila and Oliver 1977; Gambrell 1981; Manning and Manning 1984)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독서활동에 있어 부모나 교사, 친구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이 독서에 대한 문식성, 능력, 성취 행동 등 독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모델 요인으로 부모, 교사, 친구 요인을 독서역할모델요인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독서역할모델은 고등학생의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로 구성된 독서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대근 2014, 137). 그러나 독서역할모델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요인에 대한 개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와 구분되는 차이

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교사의 경우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로 독서역할모델로서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역할모델의 하위요인인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요인이 독서유효성의 하위요인인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을 통하여 고등학생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의 영향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고등학생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요인인 성별, 계열별, 학년별 영향력의 차이의 분석을 통해 고등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에 독서역할모델의 영향력의 차이의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독서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정대근 2014)의 추가 연구로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독서역할모델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독서역할모델로서 부모, 교사, 친구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로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를 포함하는 독서유효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독서역할모델에 관한 개인 특성을 반영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 성별, 인문계열과 실업계열로 구분한 계열별,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구분한 학년별 영향력의 차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역할모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대근(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1,358부의 설문을 기초자료로 하여 독서역할모델 분석에 적합한 1,224부를 사용하였다. 선택된 데이터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의 개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독서유효성

경영학에서의 조직유효성(organization effectiveness)은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직유효성은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성과평가의

기준이며, 귀중한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을 변화 시키는 조직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개인에 대한 조직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경영학 측면의 선행연구들 상당수는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다루고 있었다. 즉, 조직의 매출액이나 성장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투입량과 산출량을 통해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입량에 따른 산출량의 측정은 양적인 측면에 한정되고 있어 구성원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Quinn and Rohrbaugh 1983, 363-365).

활동유효성(activity effectiveness)이란 조직이 세운 활동 목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용어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과 양, 개인이 생산하는 능률성,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응력, 지식과 인식을 의미하는 정체감, 환경에 대한 현실검증능력,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욕구와의 통합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개인의 활동유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활동유효성을 고려하는 변수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으며, 통합적 접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개인의 활동을 통해 느끼는 내적인 평가, 몰입도나 만족도 등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 등과 같은 주관적 인식을 활동유효성으로 간주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1980년 이후 활동유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적으로 다수의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은 시간적 차원과 활동적 성격,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구혜영 2005, 18-19). 또한 조직유효성과 활동유효성의 개념을 통해 독서유효성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독서유효성은 '개인이 독서활동을 통해 얻는 내적 평가로 독서활동에 대한 정의적 개념을 개인의 주관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라고 정의하였다(정대근 2014, 40).

2. 독서유효성 구성요인

가. 독서몰입

지금까지 독서 연구는 인지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 독서 연구자들은 내용의 이해의 부분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와같은 학문적 분위기 가운데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포함되는 몰입 독서나 몰입형 독자에 관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과 견제, 보완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Guthrie and Wigfield 2000, 403-404).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인지 중심 학습 모형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독서 연구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독서의 인지적 영역이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조망되었

다. 그 과정에서 독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자발적인 독서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몰입독서나 몰입형 독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학문 분야로 확립되었다(이순영 2006a, 202-203). 몰입에 관한 용어는 engagement, flow, immersion, involvement, commitment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모든 개념을 ‘몰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 몰입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과 추상적 개념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심리학을 기반으로 연구되었고, 교육학, 경영학, 독서 연구 분야로 확장되었다.

독서교육 분야의 몰입에 관한 연구는 몰입형 독자나 독서동기가 높은 독자가 그렇지 않은 독자들에 비해 책을 더 자주 읽는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Baker, Dreher and Guthrie(2000, 202-203) 등은 독서동기가 높은 학생은 책을 더 자주 읽고 많이 읽으며 더 몰입하여 읽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몰입독서의 경험은 다시 학습자의 독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서에 몰입하는 것은 독서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Massimini, Csikszentmihalyi and Fave(1988) 등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이나 문화권에 관계없이 독서활동에 있어 몰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이나 늙은이나, 건강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전통적인 사람이거나 현대적인 사람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독서를 통해 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의 경우 독서자료, 독서목적 및 의도성,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방법, 독서빈도, 환경 등의 영역에 걸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몰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초·중등학생들은 남녀, 지역, 학급에 관계없이 독서를 통해서 몰입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병기 2010, 70-71).

나. 독서만족

독서분야에서 만족이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와 달리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독서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인 측정지표인 만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수치화가 가능한 독서능력 등의 결과를 우선 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족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만족이란 특정 활동을 함으로써 성취·인정·보상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감정 및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만족에 대한 연구는 1935년 Hoppock의 연구 이후 1976년 Locke에 이르기까지 무려 3,000여건 이상 발표되었다. 이처럼 만족이 학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이유는 구성원들의 호의적인 태도가 활동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리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믿고 있는 활동에 대해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선영 2012, 34-35). 만족에 관한 개념은 학문분야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만족에 대한 완전한 개념 정의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과학 측면과 경영학 측면에서의 정의를 통해 독서만족의 정의를 규정해볼 수 있다.

먼저 생활과학 측면에서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해 부여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라 할 수 있는 생활만족(Graney and Marshall 1975; Kalish 1975; Medley 1980; 최인근 2007)을 규정한다. 또한 경영학 측면에서 각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업무에 대한 경험에서 만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얼마나 흡족하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감정적 상태인 직무만족(Locke 1976; Smith, Scott and Hulin 1977; 전선영 2012)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 독서만족이란 ‘자신의 독서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 태도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독서활동을 토대로 미래의 자신의 독서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의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 독서지속의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개념인 활동지속의지는 활동유효성의 개념을 지지하는 하위 요소로 정의된다. 직업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구성원들에게 활동지속의지는 반대로 이직 의도의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구혜영 2005, 23). 지속은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되거나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지는 심리학적 개념으로는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철학적 개념으로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욕구이다. 즉, 지속의지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독서지속의지를 정의해 보면 독서지속의지란 독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독서상태를 오래도록 계속할 수 있는 내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3. 독서역할모델

가. 고등학생의 독서와 부모

인간이 출생하면서 접하게 되는 최초의 환경은 가정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가 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정어린 사랑의 관계는 자녀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지만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자녀의 부정적·공격적인 행동을 유발시킨다.

Bandura는 사회학습이론을 통해서 아동은 부모의 삶의 양식을 모방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을 학습한다고 말한다. 부모는 자녀가 처음으로 모델로 삼는 생활의 중심인물이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초자아(super-ego)를 키우며 사회화를 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과 생활 태도는 자아의 성격 및 인성의 형성은 물론 자아개념(self-concept), 가치관 및 행동수행 능력의 형성에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권옥경 2008, 7). McGee and Richgels(1990)는 자녀들의 독서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읽기와 쓰기 자료가 풍부한 환경, 읽기와 쓰기가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환경, 일상적으로 읽기와 쓰기가 이루어지는 환경, 문어체에 의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 부모가 자녀의 문식성 발달에 책임의식을 가진 환경, 부모가 자녀의 지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환경을 말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필자와 독자로서의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 자녀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녀의 독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성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고등학생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여러 가지 변화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연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독서를 통해 삶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적능력을 계발하게 되며,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고 볼 때, 독서역할모델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고등학생의 독서와 교사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다. 우리는 흔히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학교는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 활동의 장이다. 오늘날 학교의 영향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에 들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학교는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학교는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되었다(정옥분 2005, 255). 이와 같이 고등학생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은 학교인데, 학교는 독특한 체계와 구조를 지닌 또 다른 하나의 사회이다. 학교는 제도화된 조직 속에서 그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사회체계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심리적인 분위기가 있게 마련이다. 학교는 단지 일정한 지식만을 주고받는 장소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상황을 주고받으며, 구성원들이 상호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서 사회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근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등학생의 특별한 재능을 발굴하여 격려해준다. 또한 학생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준다(Ericson 1968, 124-125).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느끼는 교사의 관심이나 인식에 의해 학습 동기는 물론 자아효능감, 학습에 대한 몰입 수준, 가치, 기대치, 소속감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느낄 때, 교사가 제시하는 기준이나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이순영 2006b, 366).

즉 사회·학습적 관점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은 의미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고, 관찰을 통한 학습은 친사회적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독서분야에서도 교사의 역할모델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특히 교사가 독자로서 확실한 역할모델이 되어주는 것, 책이 많은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 학생 스스로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책을 통해 다른 학생과 소통 하는 것, 다양한 책을 접하는 것, 읽기와 관련된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 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Gambrell 1996). 또한 읽기검사(MRT)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읽기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읽기에 관한 좋은 모델을 찾았고, 읽기 환경이 잘 조성되었으며, 부모나 교사의 관심이나 격려가 많았으며, 부모나 교사가 학생의 성취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Newman 198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독서를 하는 동안 교사와 함께 책을 읽은 학생들의 읽기 행동은 통제 집단의 학생들의 읽기 행동에 비해 32% 증가했다(Wheldall and Entwistle 1988).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학생에게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학생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 고등학생의 독서와 친구

청소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보다 넓은 사회로 나아간다. 그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연령으로 구성된 친구집단은 청소년기의 행동에 있어 기준이 되어 고등학생의 사회화와 성격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체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시에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친구의 존재는 다른 시기보다 정서적으로 특히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Piaget와 같은 일부 이론가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만큼이나 또래들도 청소년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아동기에는 두 개의 사회적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는 성인-아동 교류를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또래들 사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haffer and Katherine 2012, 777). Freud(1966)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부모를 잃은 후 함께 지내던 여섯 명의 아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담했으며, 그들은 부모의 보살핌 없이도 비행 고등학생이 되지 않았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부모가 없어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화가 가능함을 알려주며, 좋은 친구관계는 사회적 적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역할모델로서의 친구의 영향에 대해 학생들의 독서성취와 태도에 대한 역할모델의 개발을 위해 통제집단과 지속적 묵독(sustained silent reading) 집단과 동료상호작용집단, 교사-학생 협의집단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동료상호작용집단과 교사-학생협의집단이 다른 두 집단 보다 독서태도가 더 좋았으며, 동료상호작용집단은 다른 집단 보다 독서성취가 가장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Manning and Manning 1984, 378). 이는 학생들 상호간에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책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좋은 책을 추천하는 등의 상호작용이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고등학생들을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조력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Ⅲ.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1. 연구가설 설정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인 변화를 겪으며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가설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역할모델을 모습을 통해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찾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독서에 있어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 교사, 친구를 영향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독서역할모델은 고등학생의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독서역할모델(친구, 부모, 교사)은 독서유효성(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 독서역할모델(친구, 부모, 교사)은 독서유효성(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연구가설 3> 독서역할모델(친구, 부모, 교사)은 독서유효성(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연구가설 4> 독서역할모델(친구, 부모, 교사)은 독서유효성(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 기초자료 분석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독서역할모델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를 포함 6대 광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수집된 1,224명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별, 학년, 계열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특성별 빈도 및 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성별	남학생	707	57.8	1,224(100)
	여학생	517	42.2	
학년	1학년	635	51.9	1,224(100)
	2학년	453	37.0	
	3학년	136	11.1	
계열	인문계열	687	56.1	1,224(100)
	전문계열	537	43.9	

성별에 따른 응답자 특성은 남학생이 전체의 707명(57.8%)으로 여학생 517명(42.8%)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51.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학년(37%), 3학년(11.1%)순으로 나타났다. 3학년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인문계열의 경우 수학적 시험 준비로 시간확보가 어려웠으며, 실업계열의 경우 취업 등으로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열별 응답자는 인문계열(56.1%)의 학생이 전문계열(43.9%)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 영향요인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독서 역할 모델	부모	1,224	2.30	.807	2.50
	교사	1,224	2.64	.842	
	친구	1,224	2.55	1.039	
독서 유효성	독서몰입	1,224	2.58	.841	2.83
	독서만족	1,224	2.78	.990	
	독서지속의지	1,224	3.10	.990	

고등학생의 독서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리커트 5점척도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독서역할모델 요인의 평균은

2.50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독서역할모델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부모의 경우 2.30으로 교사, 친구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독서역할모델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2.83로 나타났는데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는 높았으나 여전히 보통(3점)을 넘지 못하였다. 특히 고등학생 스스로 독서활동에 집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독서몰입의 경우 2.58로 나타났으며, 독서만족 또한 2.78로 나타나 자신의 독서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서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내적인 욕구의 정도를 측정하는 독서지속의지는 3.10으로 독서유효성 변인 중 유일하게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수치를 통해 나타난 고등학생의 독서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스스로 만족하지도, 몰입하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다만 향후 독서의 가치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등학생의 독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적절한 자극을 준다면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실증분석 및 연구가설 검증

가. 독서역할모델과 독서유효성간의 관계

이 연구는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고등학생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 부모, 교사, 친구로 구성된 독서역할모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독서역할모델의 각 요인이 독서유효성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간 설명력(R²)의 변화량을 파악하여 독서역할모델의 각 요인이 독서유효성의 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화하고 구체화하였다.

〈표 3〉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구분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독서유효성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역할모델	친구 영향	.248	.248	.000	.212	.212	.000	.315	.315	.000	.322	.322	.000
	부모 영향	.319	.070	.000	.255	.043	.000	.376	.061	.000	.394	.073	.000
	교사 영향	.327	.008	.000	-	-	-	-	-	-	.396	.002	.048

p <0.05 (t>1.96)

<표 3>과 같이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독서역할모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39.6%로 나타났으며, 이 중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구요인에 부모요인을 추가함으로 얻을 수 있는 설명력은 39.4%였으며, 교사 요인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추가설명력은 단 0.2%에 불과했다.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독서역할모델은 독서몰입에 32.7%의 설명력을 가지며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은 친구였으며 부모, 교사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 매우 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만족의 설명력은 25.5%로 독서유효성 하위요인 중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반면 독서지속의지는 독서유효성의 하위요소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인 37.6%로 나타났다. 독서몰입의 차이점은 독서만족과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교사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는 고등학생의 독서만족 및 독서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별에 따른 독서역할모델과 독서유효성 간의 관계

개인적 특성인 성별에 따라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성별)

구분		남학생			여학생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85	.285	.000	.352	.352	.000
	부모 영향	.377	.092	.000	.404	.052	.000
	교사 영향	.381	.004	.043	-	-	-

p <0.05(t>1.96)

성별에 따른 독서역할모델은 남학생(38.1%)보다 여학생(40.4%)의 독서유효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요인의 투입에 따른 변화량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9.2%인 반면 여학생은 5.2%로 부모 요인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남학생의 경우에 미미하지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몰입에 미치는 영향(성별)

구분		남학생			여학생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32	.232	.000	.253	.253	.000
	부모 영향	.321	.089	.000	.303	.050	.000
	교사 영향	.332	.011	.001	.309	.006	.039

p < 0.05 (t > 1.96)

〈표 5〉는 성별에 따라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의 하위요인인 독서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서몰입의 경우 독서역할모델이 여학생(30.9%)보다는 남학생(33.2%)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 하위요인의 경우는 독서유효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친구의 경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독서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독서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교사의 경우 미미한 영향력이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성별)

구분		남학생			여학생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04	.204	.000	.219	.219	.000
	부모 영향	.280	.076	.000	.232	.013	.003
	교사 영향	-	-	-	-	-	-

p < 0.05 (t > 1.96)

〈표 6〉은 독서역할모델이 고등학생의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독서만족의 경우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의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만족의 경우도 독서몰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독서역할모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친구의 경우 여학생이 부모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서몰입 요인과의 차이점은 독서만족의 경우 교사의 경우 영향력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교사는 학생들의 독서만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성별)

구분		남학생			여학생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67	.267	.000	.352	.352	.000
	부모 영향	.337	.070	.000	.405	.053	.000
	교사 영향	-	-	-	-	-	-

p <0.05(t>1.96)

〈표 7〉은 성별에 따라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독서지속의지 요인의 경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친구요인의 경우 여학생에게 35.2%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경우 독서지속의지 역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는 독서 만족과 동일하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계열에 따른 독서역할모델과 독서유효성 간의 관계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열 고등학교와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계열의 고등학교로 구분되며 계열에 따른 독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인별 특성이 고등학교의 계열별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계열별)

구분		인문계열			전문계열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77	.277	.000	.291	.291	.000
	부모 영향	.381	.105	.000	.324	.033	.000
	교사 영향	-	-	-	.332	.008	.014

p <0.05(t>1.96)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은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계열(33.2%)에 비해 인문계열(38.1%)의 독서유효성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역할모델의 하위요인에 따른 영향력은 인문계열과 전문계열 모두 친구의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영향요인별 변화량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에 비해 전문계열

이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영향은 전문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계열은 미미하나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몰입에 미치는 영향(계열별)

구분	인문계열			구분	전문계열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부모 영향	.208	.208	.000	친구 영향	.261	.261	.000
	친구 영향	.302	.094	.000	부모 영향	.296	.035	.000
	교사 영향	-	-	-	교사 영향	.309	.013	.002

p < 0.05 (t > 1.96)

계열에 따라 독서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독서몰입의 경우 독서유효성의 다른 하위요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유효성의 경우 독서역할모델의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에 더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독서몰입의 경우 작은 수치이지만 인문계열(30.2%)보다 전문계열(30.9%)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이점은 인문계열 고등학생의 독서몰입의 경우 친구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친구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열의 경우는 친구, 부모, 교사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계열별)

구분	인문계열			전문계열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189	.189	.000	.188	.188	.000
	부모 영향	.249	.060	.000	.212	.024	.000
	교사 영향	-	-	-	-	-	-

p < 0.05 (t > 1.96)

〈표 10〉은 계열에 따른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문계열(21.2%)에 비해 인문계열(24.9%)의 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계열 모두 친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18.9%)과 전문계열(18.8%) 모두 친구에게 비슷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반면 독서만족에 있어 부모의 영향은 전문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만족의 경우 교사는 인문계열과 전문계열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계열별)

구분		인문계열			전문계열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 역할 모델	친구 영향	.263	.263	.000	.274	.274	.000
	부모 영향	.341	.078	.000	.299	.025	.000
	교사 영향	-	-	-	.304	.005	.043

p <0.05(t>1.96)

고등학생의 독서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는 독서유효성의 전반적인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친구와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문계열의 경우 친구와 부모 그리고 미미하지만 교사에게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열보다는 인문계열이 상대적으로 독서역할모델에게 더 높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영향은 인문계열보다는 전문계열이, 부모의 영향은 전문계열보다 인문계열 고등학생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학년에 따른 독서역할모델과 독서유효성 간의 관계

독서에 있어서 연령은 독서태도 등 독서 변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연령을 대변할 수 있는 학년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독서역할모델이 고등학생의 학년에 따라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독서역할모델이 학년에 따라서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경우 42.5%, 2학년은 36.6%, 3학년은 36.3%의 설명력을 보였다.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의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전학년 모두에서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1학년과 2학년은 부모인 반면 3학년은 교사로 나타났다.

〈표 12〉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학년별)

구분		1학년			2학년			구분	3학년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역할모델	친구 영향	.351	.351	.000	.293	.293	.000	친구영향	.282	.282	.000
	부모 영향	.425	.074	.000	.366	.073	.000	교사영향	.338	.056	.001
	교사 영향	-	-	-	-	-	-	부모영향	.363	.025	.024

p <0.05 (t>1.96)

즉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친구, 부모 순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교사는 이들에게 독서역할모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3학년의 경우 친구 영향 다음으로 교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 2학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교 3학년은 독서역할모델 중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몰입에 미치는 영향(학년별)

구분		1학년			2학년			구분	3학년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역할모델	친구 영향	.270	.270	.000	.228	.228	.000	부모영향	.224	.224	.000
	부모 영향	.343	.073	.000	.290	.061	.000	친구영향	.302	.078	.000
	교사 영향	.348	.005	.032	.299	.009	.016	교사영향	.328	.026	.025

p <0.05 (t>1.96)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몰입에 미치는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독서몰입에 있어 독서역할모델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학년은 1학년이었으며 다음으로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독서유효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1, 2학년 학생은 친구, 부모 순으로 독서역할모델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도 미미하지만 영향을 고등학생의 독서몰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학년의 경우 독서몰입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친구와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투입했을 경우 각각 7.8%, 2.6%의 설명력이 추가되었다.

<표 14>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학년별)

구분		1학년			2학년			구분	3학년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역할모델	친구영향	.219	.219	.000	.194	.194	.000	친구영향	.252	.252	.000
	부모영향	.272	.053	.000	.238	.044	.000	교사영향	.281	.029	.021
	교사영향	-	-	-	-	-	-	부모영향	-	-	-

p <0.05 (t>1.96)

<표 14>는 독서역할모델이 학년에 따라 독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독서역할모델이 독서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학년은 3학년으로 28.1%였으며, 다음으로 1학년(27.2%), 2학년(23.8%) 순이었다. 1학년과 2학년은 독서만족에 있어 친구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다음으로 부모였고 교사는 1,2학년의 독서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1, 2학년과 차이가 있었는데, 3학년 역시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만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독서역할모델은 1, 2학년과 달리 부모가 아닌 교사였다. 또한 부모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독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학년별)

구분		1학년			2학년			구분	3학년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R ²	R ² 변화량	p 변화량
독서역할모델	친구영향	.362	.362	.000	.268	.268	.000	친구영향	.273	.273	.000
	부모영향	.422	.060	.000	.333	.065	.000	교사영향	.317	.043	.004
	교사영향	-	-	-	-	-	-	부모영향	.337	.020	.048

p <0.05 (t>1.96)

독서역할모델이 학년별로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5>와 같다.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지속의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학년은 1학년(42.2%)이었으며, 다음으로 3학년(33.7%), 2학년(33.3%) 순으로 나타났다. 1, 2학년은 친구의 영향, 다음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는 반면 이들에게 교사는 독서역할모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학년의 경우 독서지속의지에 있어 친구보다는 작지만 교사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영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결과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 지 모두에서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만족과 독서지속의지에 있어 교사는 고등학생의 독서역할모델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남학생의 경우 독서몰입 및 독서만족에서 여학생보다 독서역할모델에게 더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지속의지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영향을 받고 있어 전체적인 독서유효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독서역할모델에게 더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하위요인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교사의 경우 독서몰입에서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만족 및 독서지속의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영향에서 친구의 경우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부모의 경우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영향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른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인문계열의 학생의 경우 독서만족과 독서지속의지에 있어서는 친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독서몰입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의 경우는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모두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계열이 학생의 경우는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모두에서 친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독서몰입과 독서지속의지에서 미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과 전문계열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전문계열 고등학생은 인문계열 고등학생에 비해 친구의 영향력이 더 높았으며, 인문계열 고등학생은 전문계열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 인문계열 고등학생에게는 독서역할모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경우 독서몰입 및 독서지속의지에서 미미하지만 교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년제에 따른 독서역할모델이 독서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학년이 낮을수록 독서역할모델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년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2학년과 3학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1, 2학년의 경우 독서몰

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모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 몇몇 요인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독서역할모델의 영향에 있어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독서몰입의 경우 1, 2학년과 반대로 친구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만족의 경우는 친구와 교사의 영향은 받으나 부모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서지속의지의 경우는 친구, 교사, 부모 순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독서역할모델에 있어 1, 2학년에 비해 교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독서역할모델 활성화 방안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독서몰입, 독서만족 및 독서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교사, 친구 요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질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독서역할모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독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은 친구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독서생활은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친구나 동료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등학생의 독서몰입 및 만족, 지속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친구의 영향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이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구독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문계열의 학생보다 전문계열 학생이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인문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서유효성이 낮은 전문계열 학생의 독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보다 친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독서역할모델로써 부모는 친구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요인에서 부모가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전문계열 학생보다는 인문계열 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독서몰입에 있어서는 친구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과는 별개로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독서역할모델로써의 중요성을 평가한 점수는 친구(2.55)나 교사(2.64)에 비해 낮은 2.30이었다. 이를 볼 때 고등학생들에게 부모는 중요한 영향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독서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독서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가정 내에서 독서토론 등 다양한 독서활동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교사의 경우 대부분의 요인에서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향을 미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독서역할모델에서 교사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2.64로 부모나 친구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 평가점수는 높으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통해, 학생들은 교사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독서역할모델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작금의 교육여건을 보면 독서에 대한 미래투자보다는 대학입시라는 당장의 현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의 중요성과 관련 학과과목만을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교사의 문제를 넘어 현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된 지금의 시점에서 교사의 역할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직무연수 및 교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독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V. 결 론

독서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독서현실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입시위주의 풍토가 그대로 영향을 미쳐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등학생 독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서역할모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부모, 교사, 친구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고등학생의 독서몰입, 독서만족, 독서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독서역할모델은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인문계열 학생보다는 전문계열의 학생이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에게는 친구 다음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계열 학생보다는 인문계열 학생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독서몰입에 있어 인문계열 학생과 3학년 학생은 친구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경우 고등학생의 독서유효성에 요인에 있어 대부분의 항목에서 영향이 없었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친구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여학생을 위한 차별적 독서프로그램 개발, 전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친구독서프로그램 특성화, 부모의 독서모범 및 가정 내 독서 활동 활성화, 교사 대상 독서관련 직무연수 실

시, 학생과 상호작용 가능한 독서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을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독서역할모델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서역할모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배제되어 생애주기에 따르는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들을 모두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참고문헌

- 고영복. 2000. 『사회학 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구혜영. 2005. 『자원봉사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의 자원봉사자 활동유효성에 대한 영향』. 박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권옥경. 2008.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개념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8(1): 5-29.
- 이병기. 2010. 초·중등 학생의 독서 플로우 성향과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51-72.
- 이순영. 2006a. 몰입 독서의 개념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 120: 201-224.
- 이순영. 2006b. 독서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연구』, 16: 359-381.
- 전선영. 2005. 『성인학습자의 학습자특성과 교육기관특성이 평생교육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 및 학습만족수준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정대근. 2014. 『청소년의 독서유효성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인근. 2007. 『노인의 여가 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Baker, Linda, Mariam J. Dreher, and John. T. Guthrie. 2000. *Engaging Young Reader: Promoting Achievement and Motivation*.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Bandura, Albert. 1977. "Social cognitive theory." in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ume One*, edited by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and E. T. Higgins. Princeton, N. J. : Van Nostrand, 349-374.
- Erikson, Eric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reud, Anna. 1966. *The Ego and its Mechanisms of Defens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ambrell, Linda B. 1996. "Creating Classroom Cultures that Foster Reading Motivation." *The Reading Teacher*, 50(1): 14-25.
- Graney, Marshall J. 1975. "Happi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30(6): 701-706.
- Guthrie, John T. and Allan Wigfield. 2000. "Engagement and Motivation in Reading." In: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III*. edited by M. L. Kamil, P. B. Mosenthal, P. D. Pearson and R. Barr. New York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403-422.
- Kalish, Robert A. 1975. *Late Adulthood : Perspective on Human Development*. California: Cole Publishing Co.
- Locke, Edwin A. 1976.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Handbook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edited by E. A. Locke and M. D. Dunnette.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1297-1334.
- Manning, Gary L. and Maryann Manning. 1984. "What Models of Recreational Reading Make a Difference?" *Reading World*, 23(4): 375-380.
- Massimini, Fausto, Mihaly Csikszentmihalyi, and Antonella D. Fave. 1988. "Flow and Biocultural Evolution." In: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edited by M. Csikszentmihalyi and I. S. Csikszentmihalyi.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60-81.
- McGee, Lea M. and Donald J. Richgels. 1990. *Literacy' Beginnings: Supporting Young Readers and Writers*. Massachusetts: Allynd Bacon.
- Medley, Morris L. "Life Satisfaction Across Four Stages of Adult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1(3): 193-209.
- Newman, Anabel P. 1982. "Twenty Lives Revisited: A Summary of a Longitudinal Study." *The Reading Teacher*, 35(7): 814-818.
- Quinn, Robert E. and John Rohrbaugh. 1983. "A Spatial Model of Effectiveness Criteria: Toward a Competing Values Approach to Organizational Analysis." *Management Science*, 29(3): 363-377.
- Shaffer, David R. and Katherine Kipp. 2012. 『발달심리학』, 8th ed. 송길연 등 역. 서울: CENGAGE Learning.
- Smith, Frank. J., Kenneth D. Scott, and Charles D. Hulin. 1977. "Trends In Job-Related Attitudes of Managerial and Professional Employe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0(3): 454-460.

Wheldal, Kevin and Judy Entwistle. 1988. "Back in the USSR: The Effect of Teacher Modeling of Silent Reading on Pupils' Reading Behavior in the Primary School Classroom." *Educational Psych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al Psychology*, 8(1-2): 51-66.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In-Keun. 2007. *A Study on Liv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Old's Leisure Activity*. Ph. D. diss.,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Republic of Korea.
- Chung, Ock-Boon. 2005. *Adolescence Psychology*. Seoul: hakjisa.
- Jeon, Seon-Young. 2005. *The Influence of Character of Adult Learners and Educational Institution on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 Mediator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Learning Stisfaction*. Ph. D. diss.,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Jeong, Dae-Keun. 2014.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Reading Effectiveness*. Ph. D. diss.,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Ko, Young-Bok. 2000. *Sociology Dictionary*. Seoul: Institute of Society and Culture.
- Koo, Hye-Young. 2005.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Organizational · Work's Characteristics of Voluntary Service on the Volunteer's Effectiveness :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Empowerment*. Ph. D. diss., Graduate School of The Catholic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Kwon, Ok-Kyung. 2008. The Effect of Reading Education Program on the Parent's Self-Concept and Efficacy.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8(1): 5-29.
- Lee, Byeong-Ki. 2010. An Analysis on the Affecting Factors, Reading Disposition of Reading Flow of Elementary and Second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51-72.
- Lee, Soon-Young. 2006a.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s of Reading Engagement. *Korean Education*. 120: 201-224.
- Lee, Soon-Young. 2006b. A Theoretical Review on the Factors Affecting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Reading.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6: 359-381.